



요약

사설

성 아르테미데 자티는 우리 모두의 모델.

양성 여정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

서로를 알아가기

포르투갈의 ADMA.

믿고 말하고 미소지으십시오

돈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타임 총장 편지 - 소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적 동반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 Don Giuseppe Quadrio e Maria Pia Gallo.

가족의 연대기

- 청소년 ADMA 피정.
- ADMA 초등학교에서 가족 철수.

- Jaboatão dos Guararapes, Pernambuco, Brazil의 Don Bosco Oratory의 지역 ADMA.

사설

성 아르테미데 자티는 우리 모두의 모델

P.1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P.3

우리는 이 새로운 사목의 해를 다시 시작하며, 2022년 양성 여정의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여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원천을 재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의 봉사로 우리 성소를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해줍니다.

P.7

P.9

두 번째 단계인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의 근본 요소인 기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께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어, 성자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느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P.13

두번째 단계는 살레시오 가족과 온 교회가 하나되어 경축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10월 9일 시성된 성 아르테미데 자티에 대해 우리 ADMA도 기뻐 용약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P.14

Artemide Zatti의 성화의 여정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단순하고 열린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섭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번 달 우리가 하게 될 만남과 성찰을 하늘에서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P.15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고
성숙시키십시오.”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아르테미데 자티 (Artemide Zatti)는

“살레시안이며 본당 신부이자 영적 지도자인 Carlo Cavalli 신부의 지도로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켰습니다. 그는 자티에게 참되고 현명한 친구였으며, 고해 신부이자 매일의 기도와 주간 성사 생활을 돌보는 영적지도자였습니다. Carlo 신부의 영적지도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사제관 도서책장에 있던 돈 보스코의 전기를 읽게 된 자티는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이 자티의 살레시오 성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 땅에서의 그의 체험- 사제가 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과 수련소 입회, 이 길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것을 봉헌하는 능력,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청하는 치유의 은혜, 성실하고 관대한 살레시오 수사로서의 서원, 그리고 마침내 병자들을 위한 사랑의 봉사 - 하느님 아버지와의 기도와 대화, 크나큰 신앙과 순명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마리아께 의탁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이러한 원의를 크게 하고 기도의 은혜를 청합시다 - 자티 성인과 도움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 기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 계획의 중심에 있고 우리 모임의 중심이자 엔진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활동.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교제를 살아있고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기도와 말씀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호세아, 2,16)

하느님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Pregare è entrare in questo dialogo con Dio, che ci cerca e che desidera stare con ciascuno di noi.

“기도는 영혼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열망하고 그분 안에서 숨쉬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6장).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록, 3,20)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친구요, 계약을 맺으신 분이시며,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느님과 신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도, 감사하는 자녀도, 충실한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가, 22,20)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몸짓으로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는 십자가의 신비를 예고하십니다. 하느님은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저버려 그를 골고타로 끌고 갈 때에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잠깐만’이라고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인내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인내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함께 하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 가까이에서 부드럽고 큰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5-26)

기도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오시어 머무십시오.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에서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작은 신호라도 떨어진 우리 마음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항상 희망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 시선, 이 관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선물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일상 생활에서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 14,23)

그분의 아들(말씀)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로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치와 충만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자신을 맡기면 말씀에 의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며, 신비의 씨앗처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 마음 안에 자라게 합니다. 그분은 씨 뿌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초대되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루카, 8,15)**

그때에 여러 도시에서 모여온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삭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으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묻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 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끈기 있게 돌보아 결실을 맺는다.

“특히 주님의 삶과 수난을 묵상하는 마음의 기도를 권합니다. 당신이 묵상 중에 자주 관상한다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의 행동 방식을 생각하게 되고, 그의 행동을 당신의 본보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명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필로테아 II, 1).

기도는 하느님과 일치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피조물인 우리의 부족함과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함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하느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역사를 읽음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자라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성을 무지와 나쁜 애착으로부터 정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명료함과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의지를 천상의 사랑으로 이끕니다. 기도는 성수를 뿌리듯이, 우리 영혼의 불완전함과 우리 영혼의 꺼진 열정, 결점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내어, 우리의 좋은 원의를 다시 일으켜주고, 푸르게 하며 꽃피게 합니다.” (필로테아 2, 1-2).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계약의 신비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팔에 안겨 기도하며, 삼위일체적 삶의 행복의 신비에 싸여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명예를 누릴 자격이 없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느님께 경이로운 기도 안에서 반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밖에 모르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분은 증오를 모르십니다. 그분은 미움을



받지만 미움을 모릅니다. 그분은 사랑밖에 모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교황 프란체스코)

마리아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좋은 땅이기에, 이 여정의 가장 좋은 길잡이입니다. 그녀는 FIAT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 낳으셨습니다.

기도 배우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첫 장소로, 다음과 같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초대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게 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잘난 척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과 모든 곳에 계시며 현존하지 않으시는 곳이나 사물이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이며, 여기 하느님께서 계시다!”라고 말하십시오.
- 두 번째 방법은 그분이 당신이 있는 장소에만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현존하신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특별하고 유일한 자리입니다!
- 세 번째 방법은 하늘에서, 그분의 인성으로,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구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통 친구들에게 하듯이, 구세주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에 있다면 이 현존은 실제입니다. 당신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현존은 실제입니다. 그분은 정말 거기 계시며, 당신을 보고 생각하십니다(필로테아 II, 1-2).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위해 말씀의 구절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인식하고,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호감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내면의 관심이 특정 단어에 더 집중되어 그 단어에서 특별한 느낌, 열정을 끌어낼 때까지, 또는 일부 단어가 나와 더 생생하게 연관이 있기까지 텍스트를 읽고 다시 읽습니다. 또는 나에게, 나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다시 이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멈추고 내 마음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시며, 말씀이신 분과 나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낮은 목소리로 반복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눈을 감고 몇 분 동안 이 성서의 말씀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이 충만한 말씀이 누구이며, 어디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경외, 두려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가 가르치듯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므로, 말씀을 들을 때, 되풀이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과 맺는 관계는 성령에 의해 실현되고 성령 안에 있으며,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필요한 것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나의 반성이나 느낌을 주님께 알리기 위해 말씀의 반복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께서는 당신에게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공식을 지키고 계시며, 하느님을 향한 관계를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낮은 목소리로 성찰하고 질문하면서 감사하고, 간구하십시오.”(Rupnik - Discernment).

세 번째 단계는 기도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선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로테아여, 당신이 목상을 마칠 때, , 당신의 결심과 결정은 낮 동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명상에서 꼭 필요한 결실입니다. 마음을 사로잡았던 목상에서 나오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기도로 모든 유향을 망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시 침묵하고, 기도 안에서 느꼈던 감정과 사랑을 가능한 오래 보존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도에서 일로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기도와 목상을 위해

- 당신은 기도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침묵 속에 경청합니까?
- 이 경청은 주님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참된 대화입니까?
- 당신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마리아와 동행합니까?

이 달의 약속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서로를 알아가기

포르투갈의 ADMA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유럽에서 - 포르투갈로

저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Sr Maria Fernanda Afonso - ADMA 관구 영적활성자, Fr Joaquim Taveira da Fonseca - ADMA 관구 영적활성자).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당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언제 SDB, FMA가 되셨는지.

저는 FMA가 된 지 4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로사리오를 바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5남매입니다. 저는 11살 때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FMA를 만났습니다.

그 해 말에 나는 나와 같은 도시에서 온 기숙생인 친구에게 수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둘 다 FMA입니다.

Maria에 대한 사랑은 대학에서 많이 성장했지만, 당시 ADMA는 아직 우리에게 현존하지 않았습니다.

Joaquim Taveira는 SDB로 서원한 지 60년이 되었고, 사제서품은 50년 되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그는 살레시오 환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Poiares da Régua의 SDB 소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심회의 영적활성자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ADMA의 지회 영적활성자로 일했습니다. Don Taveira는 7년 동안 ADMA 관구 영적활성자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교사, 아시스턴테, 교리교사, 원장, 관구비서, 협력자 담당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양한 일들을 해왔지만, 첫자리에서 이 일들을 책임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협력자 국가 대표, 지역 사목 조정자, 아시스턴테, 본당 교리교육을 하는 교리교사입니다.

Taveira는 교사, 학교 코디네이터, 국가 스포츠 코디네이터, 수년간 교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제이며 본당 신부였습니다.

이제 그는 살레시오 가족위원장으로, 협력자(

또한 지역), 돈보스코재속회, 관구 및 지역 ADMA 영적활성자의 대표입니다.

이제 Adma에 대해 말해봅시다.

수녀님의 관구/지역에서 신심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전하였습니까?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는 포르투갈의 성 안토니오 지방이 시작된 이래, SDB의 공동체들과 연결되어, 포르투갈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Amador Anjos, 포르투갈 살레시오 사목의 100주년, 1894-1994, p. 96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포르투갈 관구의 맥락에서 볼 때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는 초창기에 꽃 피어났습니다. 그 후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는 쇠신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조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심회는 신심행위로만 국한될 수 없으며, 표지만 착용할 수 없으며, 영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도직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SDB 관구장이었던 João de Brito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의 기원은, 포르투갈에 SDB가 들어온 것과 같은 시기이고, p. Alvaro Gomes가 시작했습니다. 이는 40년 전이며, 우리는 MOGOFORES 도움이신 마리아 성전에 성지순례를 했고, 1986년부터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FMA공동체에서는 1988년 Cascais에 첫번째 ADMA 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l’Externato Nossa Senhora do Rosário에 시작되었고, 공동체 원장이었던 Sr. Lea Teixeira가 첫번째 지역 영적활성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FMA와 SDB 공동체에서 신심회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마다 회원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지회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회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신심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에는 16개 지회가 있으며 그 중 9개는 SDB 소속이고 다음의 지역에 있습니다. Estoril, Évora, Funchal, Lisbona, Manique, Mirandela, Mogofores, Porto, Cabo Verde.

FMA 공동체에는 Abrantes, Arcozelo, Assunção, Bairro do Rosário, Monte Estoril, Setúbal 및 Vendas Novas 지역에 7개의 신심회가 있습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신심회 회원수는 615명으로 FMA소속 지회원 200명, SDB소속 지회원 415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신심회는 관구 및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심회는 ADMA 규정에 따라 조직됩니다. 관구평의회와 지역평의회가 있습니다. 지역평의회는 투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신심회의 삶과 여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ADMA 제안은 일반적으로 신심회의 활동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룹들은 매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기념일과 그 즈음에 모여, 그들의 영성을 심화하고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조직합니다. **“성체성사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공경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그룹은 사람들에게 성시간을 통한 성체 흡수와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의 순간을 조직하거나 SDB 또는 FMA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미사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ADMA가 모두 모이는 날에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순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을 위해서는 ADMA Primaria 제안에 따릅니다. ADMA 그룹들은 (5월에는 파티마로 10월에는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국가 차원으로 피정과 양성에 관한 활동과 조직이 있습니다. 일부 그룹은 사회 자선 활동과 지역 교회 봉사에도 협력합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그룹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ADMA 신심회는 관구 회장이 살레시오 가족 연례회의와 살레시오 가족의 웹 페이지(말씀의 경청)에 참여합니다. 지역 회원들을 통해 살레시오 가족 전체를 위한 3 가지 국가적 활동(10월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 순례, 1 월 총장 연두사, 5월 파티마 성모 성지 순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살레시오 가족들과 함께

축제의 즐거운 순간을 조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성찬례를 통해 키우며, 마리아께 의탁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입니다. 올해 9월 첫 지역 대표 회의를 할 것입니다. 가정에 성모님 사랑을 되살리기 위해, 더 주목해야 할 가족들을 교리그룹으로 초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ADMA PRIMARIA 에, 다른 나라에도 신심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족과 청소년들과 함께 발전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널리 알리기를 제안합니다.

기존의 그룹과의 활동은, 신자로서 살레시안으로서, 우리 사회 안에서 서민들이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자로서 살레시안으로서 양성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마리아께 대한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증진.”



규정

소개

돈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타임 총장 편지



“기독교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확실히 살레시안도 살레시안 가족도 아닙니다!”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타임 신부)

ADMA를 통해 Don Bosco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수호하고 증진시키며 대중적인 종교의 내용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화의 길과 사도직 여정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믿고 맡기고 미소지으십시오!”

이것은 총장 Angel Fernández Artime 신부가 살레시안들과 모든 살레시오 가족에게, Don Bosco에 의해 Valdocco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이 축성된 지 1년 후인 1869년 4월 18일 창설된, ADMA(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여 보낸 편지의 제목입니다.

우리 총장의 소망은 살레시오 성소의 마리아적 차원을 새롭게 하여 Egidio Viganò 신부가 **“성모님을 집에 모십시오.”** 라고 초대 한 호소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평생 동안 돈 보스코를 인도했던 하느님 어머니에 대한 똑같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없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당연히 살레시안도 아니고 살레시오 가족도 아닙니다!”(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타임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살레시오회,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FMA), 살레시오 협력자회,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의 창립자이신 성 요한 보스코에 대한 기억은 살레시오 가족의 아버지로서 교회에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의 15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의 창립자 성인의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육과 복음화의 새로운 역동에 대한 의무를 느낍니다... 이 역동은 우선적으로 새로운 세대와 가족에 대한 경청으로 신심회를 쇄신하라는 초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우리는 이 서한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에게 대한 신심과 성체 흡수 신심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drea e Maria Adele Damiani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적 동반

성 프란시스 살레시오를 유명하게 만든 것 중의 하나는 영적 동반입니다. 이 동반에 관한 테마는 그의 세 권의 책인 ‘신심생활입문’과 ‘편지 모음집’, ‘영적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파리 예수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의 나이 18세에서 20세에, “동료의 책”이라는 예수회 텍스트에 따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네가 직접 하라”는 충격적인 동반 체험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완벽주의자들 속에서 불안과 혼란스러움으로 찢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뢰 깊은 사랑이며 지혜로운 안내자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읽어 주시므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곳은 안느 시의 “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세운 수도회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곳입니다.

성인 주교는 안뜰에서 요안나 샹탈을 포함한 그의 첫 제자들을 모아, 아주 친숙한 가족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면서도, 엄격하게 그들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형제이며 아버지의 중재자로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지금 여기서 조금 맛보기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하느님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영혼의, 내적 관심은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 곁을 떠나,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자기 몸과 영혼마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역시 하느님의 섭리 아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각자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원



관리를 맡은 자매는 ‘나는 정원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테니까요’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장상이나 수련장이 ‘나는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그분의 온유함 안에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와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르침을 읽고 배우기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영적 동반에서 프란치스코는 매우 친밀하면서도 민감하고 섬세하지만 성덕의 길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신심생활입문의 제1부 끝부분에서는, 이 여행의 시작에 대한 상징적이며 강렬하면서도 단호한 텍스트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세례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선하고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안하고, 선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내 영혼과 모든 능력을 그분께 맡기고, 바치며, 봉헌합니다. 모든 감각을 지닌 내 몸, 내 영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랑과 함께 내 마음. 나는 더 이상 그분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거슬러, 내 존재의 어떤 부분도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 내 마음의 하느님, 내 영혼, 내 영의 하느님,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아보며 영원히 당신을 흠모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정말 아주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들은 텍스트는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섬세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임에 섬세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서 고쳐주는 데에서도 섬세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꽃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허브와 꽃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영은 자주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온유의 영을 일깨웁니다. 때때로 이와 정반대로 슬픔과 괴로움에게 정복당한다면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저항하십시오. 산책하러 나갈 때는 그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이며 그를 깊이 있게 연구한 예수회 André Ravier의 설명을 통해 그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감명깊게 읽었던 그의 서신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그는 우정을 나누고, 의사 소통을 하며 상호적인 방법으로 영적지도를 합니다.

그가 고해사제, 조연자, 주교로서의 권위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권위 대신 겸손함과 인간애로, 섬세하게 말할 줄 알았다.

그는 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이고, 그분만이 여자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그는 한 걸음 걷고 또 한걸음을 걷는다. 찾고, 묻고, 괴로워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대상자와 한 마음 한 영혼 한 영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안식을 느낀다. 그의 동반에 대해 몇 가지 필수 요소를 기억하고 요약해 보자.

무엇보다 먼저 자기 앞에 있는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그의 삶의 상황, 건강 상태, 성숙 정도와 그 또는 그녀가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하느님 안에서의 성숙에 대해서.

신심생활입문의 시작 부분인 제1부, 제3장에서는 그리스도교적인 거룩함과 삶의 조건을 짧게 결합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사, 예술가, 수도자, 왕, 과부, 독신, 아내라는 자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심생활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의 강점, 직업과 의무에 비례해야 합니다.

어떤 보석이든 꿀에 담그면 그 색의 빛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심이 깊어지면 각자의 성소 안에서, 더 친절하고 호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도 고요해지며, 부부 사이의 사랑은 더 진실해지고, 군주를 섬기는 일은 더 충실해지며,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달콤하고 즐거워집니다.

프란치스코가 제안한 동반 여정에서 기도와 묵상은 두 가지 필수적인 도움의 요소입니다. 그 방법은 몇 가지 안되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은 각기 다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필로테아여, 묵상이 끝날 때 당신은, 오늘 하루 직접 실행하기 위해 내려진 모든 결심의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에서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묵상은 쓸모 없으며,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에 대해 명상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게 되어 결국 해롭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생생하고 견고할 때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때는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글에서 각자의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삶의 조건들은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므로 우리는 피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르고뉴 의회 의장의 부인인 브롤라르 부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악종의 악입니다. 이웃의 발에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이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살아야 한다면 스페인에 성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는 꽃피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꽃피우기 위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기쁨”에 우리 자신을 두십시오.

프란치스코의 규칙입니다. 그는 그가 사는 곳에서 평신도와 수도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위한 것이 아님,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하여”, 훌륭한

살레시오의 가르침, 그리고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구한 후에 이웃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때때로 병원을 방문하여, 병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허약함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여러분이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거나 너희 일을 소홀히 하여, 남편과 가족들, 부모가 섭섭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심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며, 사랑이 있어야 신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기쁘고 쓸모 있으며, 사랑스럽게 됩니다. 환자들이 여러분의 애덕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면, 환자들은 여러분의 헌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헌신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스런 교정, 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친절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헌신이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애정도 더 달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들의 바램에 대해, 당신이 지닌 더 큰 진실과 관용과 겸손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갤러리”의 작은 성당에서 이 개요를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처음엔 프란치스코가 그의 수녀들과 기도하려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당으로 개조할 작은 지하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환경과 믿음과 사랑의 길의 주인공인 첫 번째 수녀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돈 미셸 몰리나르

출처: [정보](#)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DON GIUSEPPE QUADRIO E MARIA PIA GALLO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2016년 5월, 2개월간의 건강 검진과 종합적인 분석 끝에 나는, 림프절, 간과 뼈로 전이된 4기 자궁암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고 화학 요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고, 겁에 질렸으며, 수만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두려움, 우리 다섯 자녀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기도마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바로 ADMA(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협회)의 모든 가족과 큰 살레시오 가족 전체의 기도와 사랑에 휩싸였으며, 하느님의 참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신 위대한 사제 가경자 Don Giuseppe Quadrio께 바치는 9일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그가 황금 담요로 나를 덮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9일 기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많은 가족(그리고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작용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치료를 아주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 모든 것과 내 몸을 맡기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내 병을 바쳤습니다. 나는 종종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런 몇 달 간의 치료 끝에, 몇 주 전 PET 스캔에서는 종양 병변이 모두 사라졌고 완치되었습니다! 의사에게는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남편과 나에게는 적어도 Don Quadrio의 은혜와 많은 신자들의 믿음과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낯선 이들의 믿음을 통해 이 큰 은총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으며, 예수님과 도움이신 마리아의 인도 아래 함께 걷는 대가족의 일원임이 진정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와 천국에서 백 배로 이를 갚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Bollettino Salesiano,
Maria Pia Gallo, ADMA Torino.

Se hai ricevuto una grazia, manda una breve testimonianza corredata da una foto a:
adma@admadonbosco.org

가족의 연대기

청소년 ADMA 피정



Cesana - 여름이 끝날 무렵인 9월 2일부터 4일까지 약 50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ADMA에서 제안한 피정에 중학생 30명과 고등학생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살레시안과 함께 부부, 젊은 대학생, 노동자로 구성된 팀이 이들을 동반했습니다.

보통 십대 청소년들의 긴 여름 휴가는 열의 없이 빈둥대는 게임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무더위가 다시 온 듯, 너무나도 열광적인 청소년들의 모습과 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로운 함성소리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멈추고, 침묵하고, 듣고, 기도하고, 노는 Cesana 3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침묵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폭발적인 살레시오 기쁨을 만끽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침묵에서 교리로, 교리에서 게임으로, 춤으로, 노래로, 산책하면서의 대화,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주방과 식당 청소를 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묵상하며, 자비와 정의, 자유와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중학생은 하느님과의 관계,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성서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매일 아침, 미사와 아침기도, 묵주기도로 시작했고, 중학생들은 준비된 독서와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잠자리 가기 전에는 돈 보스코께서 말씀하신 3번의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성시간과 고해성사로 피정의 정점을 찍었으며, 다음날 파견미사에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더욱 더 일치되고 기쁘고 사랑스러웠으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의 깊은 한 마디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3일은 너무 짧습니다!

ADMA 초등회에서 가족 철수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리노 아드마 프리마리아 피정에 참가했습니다.

Castelnuovo Don Bosco, 이탈리아 - 2022년 9월 18일 - 토리노의 프리마리아 ADMA의 연피정은 피에몬테와 리구리아에서 온 가족들이 콜레 돈 보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참석했는데, 많은 영적 활성화자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주일에는 기도와 놀이를 하며 보냈습니다.



ADMA의 세계 영적 활성화자인 Alejandro Guevara 신부와 don Roberto Carelli 신부가 이끄는 이 날은 교리교육, 회개, 성체조배, 묵주기도, 나눔, 성체성사를 바탕으로 양성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올해의 피정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인 사랑, 즉 하느님에 의한 하느님을 통한 하느님의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랑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 결론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 마음은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기에 당신 안에 쉬기까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 달의 약속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맡기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Jaboatão dos Guararapes, Pernambuco, Brazil의 Don Bosco Oratory의 지역 ADMA



5월 24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 성 요한 보스코를 기념하는 7월 24일과 8월 18일에, 우리는 지역 영적지도자 앞에서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를 기해 우리는, 우리 관구 영적활성자인 P. G. M.의 말씀에 따라 새 메달과 새 리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이신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창설자이신 아버지 돈 보스코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친교와 참여의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인 2023년 1월은 우리 지역 ADMA가 1953년 1월 10일에 907명이라는 숫자로 가입한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기념하게 됩니다

Eunice Silveira
ADMA Oratorio D. Bosco 조정자
Jaboatão - PE - 브라질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